내가 한 걸음 걷고 말하고 움죽거리는 게 다 부처님 법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공부하는 동생이 "에이, 우리 형이 그렇게 안 되면 누가 돼? 식구를 다 죽일 거야? 그냥 돼!" 하고 결정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형이 아주 그냥 웃음이 만발해 가지곤 집에 들어오는데 "형! 됐지?" 이런 소리도 안 하고, 벌써 알고요, 믿으니까. 알고 "형! 잘 다녀왔어?" 하니까 "잘 다녀오고 말고. 아유, 무슨 덕인지 몰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됐는지 몰라." 결정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건데 그냥 저쪽에서부터 결정이 그렇게 쉽게 나오니깐 무슨 백을 가졌기에 그러냐고, 대통령 백을 가졌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거 못 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을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다 써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급하게 왔을 때는 그걸 어떻게 이루종차 얘기를 하고 해요? 얘기를 해도 모르거든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조상들이 잘못해서 유전이 된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해결을 못 해요. 그리고 말도 못 한다고요. 그거 말을 하면 무꾸리쟁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못 하고 그냥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남이 해 줄 때 바라는 건 안 되죠. 누구든지 대신 못 살아 준다는 건 아시죠? 이 결정적인 문제를 단호히 뒤집을 줄 알아야 해요. 뒤집을 줄 알면, "뒤집으면 안 될 거를 뒤집는다고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돼요! 왜냐? 상대방도 달라지니까. 사람의 마음이 같아지니까. 그래서 그 묘하다고 묘법이라고 그러죠. 진짜로 믿고 참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리만큼 귀해요.

자기 주인공이 자부처고 자불이라고 그러죠, 주장자라고도 그러고.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느라고 10년 20년 30년 40년,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못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마 안 돼서 그것을 자기 동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 나오죠. 자꾸 이게 믿지 못해서 생각을 옳게 했다가 다시 돌려서 또 옳지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이게 나오려고 그러다가 그만 못 나오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못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그러죠. 그런 문제들이 허다 많아요.

말로만 이렇게 듣고 경험을 못 하신다면 참 억울하기가 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도록 열심히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내가 알고 모르고, 그거를 무조건! 나는 그냥 나다 이러더라도 그냥 보이지 않는 자기가 있다는 거, 동자가 있다는 거. 동자를 키워야 되겠다. 자기가 자꾸 해 봐야 그거 키워지죠. 그러면 그 동자하고 자기하고 둘이 아니죠. 그러면 모든 데가, 여러 군데가 다 통해요.

그럴 때 아까 얘기했죠. 이 신은 물에서 있는 저 용신도 내가 되고 내가 용신도 되고, 이렇게 바꿔서 이것도 되고, 개구리가 되려도 개구리가 되고, 뭐든지 건지려면 다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생각하면 사람이라는 이 존재도 짐승들의 삶이나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좀 진화돼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뿐이죠. 그거를 여러분이 진행을 안 해 봤으면 이해도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 봐야 '이렇구나!' 하고 눈물도 저절로 나오고 웃음도 저절로 나오고 기가 막혀서 껄껄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세 번 죽어야 한다는 뜻

질문 : 대행 큰스님께서 세 번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요. 그렇다면 초보 불자로서는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에 첫째에 모든 것을 놓는다.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 모든 잡념과 모든 전자에서부터 얻은 그 습성을 다 녹여 버리고 자기의 그 참 생수 맛을 봐서 자기가 자기를 알았을 때에, 이차적으로 자기를 또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상대방과 나와 다시 죽는 법을 또 배워야 된다. 상대방과 나와 다시 죽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과 나와 더불어 같이 나툴 줄 알아야 한다. 만약에 상대방과 나와 죽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나와 같이 나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두가 이러한 경험 저러한 경험, 우리가 살림살이에서 다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놔 버리는 데, 맡겨 놓고 사는 데 여념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생활을, 온갖 작동을 다 하면서도 그 모든 작동하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전수가 차를 몰고 다니듯이 차는 그 운전수에 달려 있는 것이지 차가 운전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듯이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자기 전자부터의 종 문서는 몰락 태워 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탄생했을 때 내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엉뚱하게 이 세상에 걸맞지 않는 말과 행이 솟아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관을 통해서 내가 보고 이것이 걸맞지 않는다면 자기가 제재해서 근본 자리에 다시 놔야 하는 법입니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무조건 들어서도 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안팎이 다 그렇겠죠?

그래서 양면을 다 쥐고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으냐 할 필요도 없이 즉각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거 잘됐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못됐다는 걸 번연히 안다면 이것을 믿고 들어가라. 믿지 않는다면 물론 불평이 나오고 상대가 있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믿고 상대가 없다면 불평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 소리를 들었다 저기에서 저 소릴 들었다, 저걸 봤다 이걸 봤다 했을 때 믿지 못하는 까닭에 그렇다. 믿지 못하는 까닭에 소릴 들었기 때문에 분이 일어난다, 소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말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나라면, 둘로 보지 않았다면, '아, 그렇기도 하겠지. 고정됨이 없으니까 때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 하는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한마디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는 거죠. 자기 안에다가 모든 것을 '아, 내가 지금 현재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러한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째 이렇게 될까.' 하고 생각이 됐을 때는 안에서 굴려서, 자기가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내가 지금 세 단계가 없는 세 단계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도리를 거기에서 넘기지 못한다면 같이 죽어서 같이 나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거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철 사는데 사람답게, 한마음 한뜻으로써 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경계하지 말고, 적어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가짐가짐을 갖고 언제나 항상 말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생각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게 그게 업보가 얼마나 큰지 모를 겁니다, 아마. 그냥 추측으로 생각하고 그냥 막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다면 그건 업보가 큽니다. 그러니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이 생각하십시오, 각자. 남이 칼로 찔러 죽인다, "너 이놈! 내 오늘 저녁에 너를 칼로 찔러 죽인다." 그러더라도 "허허" 하고 빙긋이 웃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탓 안 하고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주인공만, '내가 있으니깐 찔러 죽이러 온다지, 내가 없다면 찔러 죽일 게 뭐 있어서 오겠나.' 하고선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칼도 들지 못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부처님 법이 어디 따로 있나요? 내가 부처님 법이고 내가 부처님 법을 행하고 있고, 내 가정이, 다 살아나가는 게 부처님 법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한 걸음 걷고 말하고 움죽거리는 게 다 부처님 법이니, 이것이 참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를 발견하는 바로 재료구나. 부딪치는 게 다 재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와 자가 상봉하려면

질문 : 저는 나름대로 마음 도리 깨달아 보고 싶어서 부처님 경전을 보고 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부와 자가 상봉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 한 철 사는데 사람답게
> 한마음 한뜻으로 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경계하지 말고
> 언제나 말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답변 : 자기가 지금 이렇게 움죽거리게 된 것은 자기가 과거에 살던 자기이기 때문이니, 그래서 과거 자기는 '부(父)'가 되고 지금 현재에 형성된 자기는 '자(子)'가 되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부가 저절로 되고, 생각을 냈다 하면 자가 되는 거죠. 그냥 가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부가 되고, 생각을 냈다 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자가 되는데, 다시 말해서 가만히 있으면 자가 부로 하나가 되고, 또 생각을 냈다 하면 부가 자로 와서 하나가 되니 부다 자다 할 것도 없는 자기 주인공을 진실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진실히 믿고 잘하든 못하든, 알든 모르든, 경을 보든 안 보든…, 즉 말하자면 경을 보면 '아, 이건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따로가 되죠. 따로가 돼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삼천 년 전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든, 현재에 말씀하신 거든 '내'가 없으면 어떤 것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있는 거니까요. 내가 있기 때문에 책을 볼 수도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의 작용을 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작용하는 나를 누가 형성시켰는가? 그 바로 자기란 놈이 형성시켜 놨잖아요. 그렇죠?

자기란 놈이 형성시켜 놨으니까, 그 형성시킨 자기란 놈이 바로 부가 되는 겁니다. 자기, 참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형성된 '자'의 마음은 바로 '부'의 마음과 둘이 아닌 까닭에, 꼭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나무는 제 뿌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흙이 덮여서 그 나무가 제 뿌리를 못 보게 된 것을 무명이 덮였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바로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근본 뿌리를 자기가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모르고 그걸 떠나서 진실하게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 작용하는 일체를 나오는 자리에다가 되맡겨 놓으면, 바로 입력이 된 데다가 다시 맡겨 놓으면 과거의 입력이 없어지고 새 물로 대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입력이 되죠.

주인공 맛을 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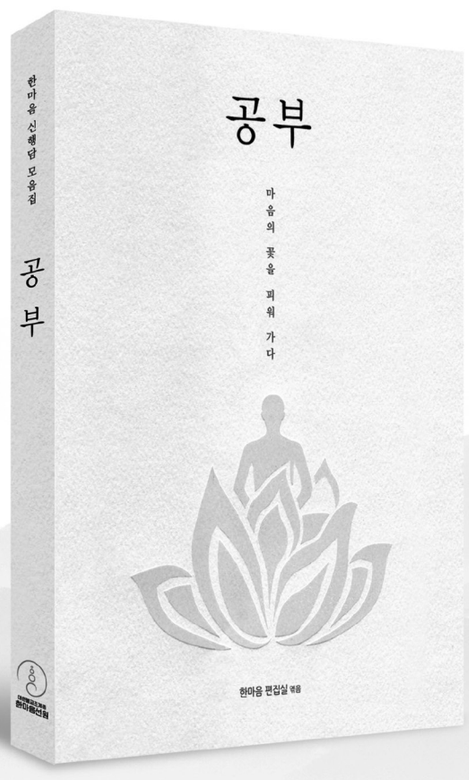
질문 : 선원에서 공부한 지는 몇 년 됐는데 아직 그 주인공 맛을 못 보고 있어 답답합니다. 뭔가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답변 : 지금 선생님 영혼이 없으면 그 몸뚱이가 송장이 돼서 말도 못 할 텐데, 그걸 모르세요? 바로 뿌리와 싹이 한데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알고도 싶고요. 그런 거니까 자기 영혼의 뿌리를, 즉 말하자면 불성을 진짜로 믿고요, '다른 데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바로 밀접하게, 뿌리와 싹이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구나. 그러니 진짜로 믿어야겠다.' 하고 거기다가 전부 놓으십시오. 이 생활하는 것을 몽땅 말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이 세상에 탄생을 했기 때문에 있는 거지 탄생을 안 했더라면 무효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아예 이름조차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탄생을 했으니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는 것이지 아, 싹이 없는데 무슨 뿌리가 있겠습니까? 뿌리도 싹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뿌리를 진짜 믿으시고 '이끌어 가는 것도 너고, 또 나를 형성시킨 것도 너니까 깨닫게 하는 것도 너다!' 이렇게 모든 거를 거기다 맡겨 놓으시고 겸손하게, 진짜 자기 그릇대로 사세요. 그릇대로, 참자기의 그릇을 아시고 그저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 보세요. 그런다면 반드시…, 그건 거짓이 없습니다. 영원한 자기의 보배인 부처는 거짓이 없어요.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우연히도 없고요, 아주!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제가.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마하몰 www.mahamall.co.kr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